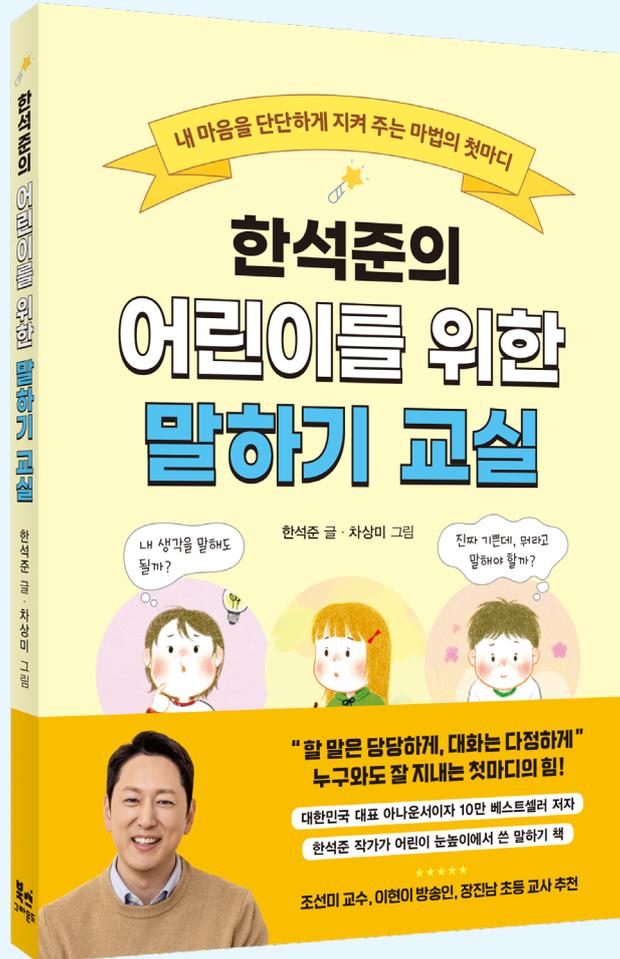


# 한석준의 어린이를 위한 말하기 교실

## 독후 활동지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 주는 마법의 첫마디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이자 10만 베스트셀러 저자

한석준 작가가 어린이 눈높이에서 쓴 말하기 책



### 초등국어 교육과정 관련 영역

2학년 1학기	2단원 자신 있게 말해요	2학년 2학기	10단원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아요
3학년 1학기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4학년 2학기	3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5학년 1학기	1단원 대화와 공감	5학년 2학기	1단원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해 볼까요?”

① 나를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개할 것	소개할 내용	이유
(예시) 내가 좋아하는 것	저는 책, 영록이, 딸기를 좋아합니다.	책은 재미있어서 좋고, 영록이는 강아지인데 너무 귀여워요. 딸기는 달콤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나의 꿈		
내가 좋아하는 것		

② 발표할 때 너무 떨린다면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마법의 첫마디**를 정리해 볼까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	--

③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발표 연습을 해 볼까요?(실수해도 괜찮아요.)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아래 빈칸에 있는 초성을 활용해 알맞은 답을 완성해 봅시다.

❶ 칭찬하는 말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 (1) 친구가 ( 스   흥   니   기 )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요.
- (2) 친구가 최선을 다해 ( 니   르   흥   스 )을 찾아 칭찬해요.

❷ 칭찬에 대답하는 말로 올바른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 (1) 칭찬에 대한 ( 기   모   오 )을 말해요.
- (2) 친구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찾아 같이 ( 예   예 )해 보세요.
- (3) 친구의 도움이 있었다면 “네 ( 니   비   오   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❸ 칭찬 릴레이 놀이를 해 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칭찬할 점을 찾아 보세요.

	친구 이름	칭찬할 말
1		
2		
3		
4		
5		



정답

❶ (1) 잘하는 것 (2) 노력한 점

❷ (1) 고마움 (2) 칭찬 (3) 덕분이야



# 도전! 올바른 높임말 왕



## 1단계 알맞은 단어 연결하기(선 긋기)

왼쪽의 낱말을 어른께 쓸 때 알맞은 높임말로 연결해 보세요.

- |      |        |
|------|--------|
| ● 밥  | ● 댁    |
| ● 나이 | ● 말씀   |
| ● 집  | ● 진지   |
| ● 말  | ● 연세   |
| ● 자다 | ● 주무시다 |

## 2단계 무엇이 맞을까요?

문장이 올바르면 ○, 틀리면 ×를 하고 바른 표현으로 고쳐 보세요.

- 할머니께서 방에 있으세요. ( ) → 정답: \_\_\_\_\_
- 선생님, 질문이 계십니다. ( ) → 정답: \_\_\_\_\_
- 주문하신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 ) → 정답: \_\_\_\_\_

## 3단계 자신 있게 인사해요.

인사는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도록 빈칸을 채우고 연습해 볼까요?

- 웃어른을 뵙게 되면, (웃으며) \_\_\_\_\_
- 부모님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방에서 나와 얼굴을 마주하며) \_\_\_\_\_

### 정답

1단계 밥 - 진지, 나이 - 연세, 집 - 댁, 말 - 말씀,  
자다 - 주무시다

2단계 × - 계세요, × - 있습니다, × - 나왔습니다.

3단계 안녕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 우리는 '대화 예절 왕'

다음 중 대화 예절에 올바른 행동에는 ○, 틀린 행동에는 ×를 하세요.

- 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다. ( )
- ②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의견을 말하며 끼어든다. ( )
- ③ 상대방의 처지나 기분을 생각하며 맞장구를 친다. ( )
- ④ 내가 관심 없는 주제일 때는 책을 보거나 딴짓을 하며 듣는다. ( )
- ⑤ 온라인 대화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 )
- ⑥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똑같이 나쁜 말이나 이모티콘으로 대답한다. ( )
- ⑦ 온라인에서는 내 감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비속어(욕설)'나 '졸임말'을 마음껏 쓴다. ( )
- ⑧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휴대 전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 )
- ⑨ 단톡방(여럿이 모인 대화방)에서 특정 친구 한 명만 따돌리거나 험담하지 않는다. ( )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 들어 본 적 있나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오래 기억에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칼보다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고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고운 말과 바른 언어 예절을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우정은 관심과 공감에서 시작해요.”

① 말을 주고받을 때 표정과 말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면 ○, 틀리면 ×를 해 보세요.

-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    )
-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    )
-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② 아래 상황에서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공감하는 말을 적어 볼까요?

친구의 상황	공감하는 말하기
(1) 친구들이 자꾸 내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불러.	
(2) 친구들이 매번 같은 놀이만 하자고 해. 나는 다른 놀이를 하고 싶어.	
(3) 한 시간 넘게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4) 친구랑 다툼서 사과했는데, 아직 친구의 기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	

### 정답

① ○, ×, ○

② (예시 답안)

- (1) “네가 싫어한다는 걸 친구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 (2) “너도 하고 싶은 놀이가 있을 텐데, 같은 놀이만 하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
- (3) “한 시간 넘게 열심히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니 정말 속상하겠다.”
- (4) “친구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쓰이겠다.”



